

# 18-19세기 의궤에서 보이는 음식차림용 목제 '반상(盤床)'의 쓰임과 형태\*

김 미 라\*\*

## 목 차

- I. 머리말
- II. 반상의 형태와 용도
- III. 위계에 따른 칠의 사용과 반상의 쓰임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조선시대 음식차림용 가구라고 하면, 바닥에 앉아서 대접받는 규모로 대부분이 20-30cm 높이를 한 식반 용도의 '소반(小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왕실행사기록인 의궤를 통해 보면,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과 같은 규모를 한 '상(床)'이라는 가구도 흔히 사용되었으며, '반(盤)'은 음식차림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용도로도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연구자는 현전 유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8-19세기로 한정하여 의궤를 중심으로 반상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궤 자료는 18-19세기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진연(進宴), 진찬의궤(進饌儀軌)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반상들을 살펴보고, 논문에서는 그중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며 본 논문의 취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담고 있는 1802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純祖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145)

\*\* 金美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mrjh7299@hanmail.net  
투고일: 2022. 04. 29. 심사완료일: 2022. 06. 19. 게재확정일: 2022. 0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163>

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와 1719년 진연의궤, 1848년 진찬의궤를 중심으로 논고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Ⅱ장에서는 전통음식차림용 가구의 대표적인 가구로 의궤에서 특히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반과 상에 집중하여 그 쓰임과 형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Ⅲ장에서는 신분의 위계가 드러나는 반상(盤床)의 사용과 칠(漆)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의궤에서는 칠 재료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 이전에 알려진 주칠(朱漆, 붉은칠)이나 흑칠(黑漆, 검은칠) 외에 세분화 된 명칭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이는 Ⅱ장의 반상의 쓰임과 형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건이 됨으로써, Ⅲ장에서 이를 서술코자 하였다.

본 논고는 의궤에서 보이는 전통 음식차림용 가구에 대한 아직 시작에 불과한 연구이지만, 의궤에 ‘반(盤) 혹은 ‘상(床)’으로 명칭 되는 수많은 가구를 읽어내고, 현전하는 유물의 용도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을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왕실공예품, 소반, 상탁(床卓), 주칠, 흑칠, 의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조선 후기

## I. 머리말

조선왕실 행사 기록인 의궤(儀軌)에 ‘음식 차림용 가구’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음식을 놓고 먹는 전통 가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소반(小盤)’으로만 통칭 되고 있다. 현전하는 전통 소반은 대부분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시대의 것으로, 높이가 20-30cm 정도에 너비는 40cm 정도의 식반(食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sup>1)</sup>, 그 연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의 「조선의 소반」을 통해서이다.<sup>2)</sup> 당시에 이미

1) 최공호, 「사진 한 컷에 담긴 근대 공예사의 원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7,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8, pp.66-89.  
2) 아사카와 다쿠미 지음,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淺川巧, 「朝鮮の膳」:1929, 『淺川巧全集』, 編者: 高崎宗司, 草風館 發行, 平文社, 1996.

전통 식반의 명칭은 '소반'으로 일반화되어 있었고, 이를 이어 오늘날에도 전통 음식차림용 가구로 알려진 것은 낮은 식반 형태의 '소반'으로 한정적이다.

조선 후기 '전통 소반'에 대해 갖가지 크기와 장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용도는 대부분이 식반(食盤)이며 그 외는 운반용, 다과용, 찻상용 등으로 해석이 국한되어 있다.<sup>3)</sup> 그런데 현전하는 조선시대 유물 중에는 식반, 혹은 다과용, 운반용 등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크기나 높이와 고급스러운 장식을 한 경우가 다수 전하며, 그 용도의 명확한 해석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본 발표는 가례도감의궤와 진연, 진찬의궤를 통한 조선 후기 18-19세기 다양했던 왕실 음식차림용 가구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시도이다.<sup>4)</sup> '18-19세기'는 현전하는 조선 후기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진연(進宴), 진찬의궤(進饌儀軌)'는 의궤 중 음식차림용 가구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헌 기록이다. 의궤 자료는 18-19세기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가례도감의궤와 진연, 진찬의궤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반상들을 살펴보고, 논문에서는 그중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며 본 논문의 취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담고 있는 1802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와 1719년 진연의궤, 1848년 진찬의궤를 중심으로 논고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18-19세기 의궤의 행사 기록은 같은 종류의

3) 문화공보담당관실 [편], 「강원반」, 『민속志: 강원도』, 강원일보사 출판국, 1989.;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김종태 글, 『소반장: 무형문화재조사 보고서 19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배만실 『소반(小盤): 한국의 전통공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나주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최공호, 김미라,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4) 의궤를 통해 음식차림용 가구를 신분에 따라 분류 연구한 논문은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행사일 경우,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흡사한 내용이 반복된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지면에도 한계가 있어, 의궤의 인용과 활용이 특정 의궤로 한정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논문에서는 의궤에 등장하는 음식차림용 가구 중, 특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식차림용 가구 형태인 ‘반(盤)과 상(床)’의 형태와 쓰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의궤 기록에서 반과 상에 대한 기록내용은 행사에 필요한 수량과 반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반상의 도식(圖式), 왕실 가족이나 신하들이 사용했던 반상의 명칭, 행사가 치러지는 전각에 배치되는 반상의 종류 등의 내용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내용은 의궤에 품목질(稟目秩)과 도식, 찬품(饌品), 기명(器皿), 배설(排設), 동퇴연기명질(同牢宴器皿秩),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 등의 여러 항목에 나뉘어 설명되어있다. 어느 사료보다도 반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자료이지만, 행사마다 수백 개에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수량의 반상에 대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형태의 반상이 사용되었는지, 행사 절차가 기록된 의주 등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그 연구의 시작점으로서, 의궤에서 보는 반상의 쓰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음 II장에서는 먼저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크기의 음식차림용 가구로서의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은 동퇴연 도식을 중심으로 그 사용형태와 쓰임을 보고, 특히 찬안상과 고죽상의 도식을 의궤에서 찾아 그동안 알려지

5) 반상 외에 음식차림용 가구로 ‘卓’, ‘案’, ‘隅板’ 등이 전한다. 의궤에 따르면 음식차림용 탁의 경우 탁(卓), 제탁(祭卓) 혹은 찬탁(饌卓) 등이 이에 해당되며, 안의 경우에는 안(案), 반안(盤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혹은 탁상(卓床)이나 탁안(卓案), 안상(案床)과 같이 흡사한 용어들을 결합하여, 음식차림용 가구를 통칭하기도 하였다. ‘우관’은 대우관(大隅板), 소우관(小隅板) 등으로 형태는 잠판(蠶板, 친참의궤에 도설이 실려있음)과 같이 낮은 높이의 사각반으로 위계가 낮은 신분에게 배설되는 음식상이었다.

지 않았던 조선왕실 연회용 테이블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반의 용도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반’의 용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형태의 ‘상’ 위에 올려 배설한 반, 둘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높이 20-30cm의 ‘좌식 높이의 식반’, 셋째 음식을 나르는 ‘운반용 반’의 용례를 의궤에서 찾아보고, 궁중 행사에서의 그 쓰임을 살펴본다. 특히 첫 번째의 용도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용도로 주목되어, 비중을 두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반상을 장식하는 표면의 ‘칠(漆)’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칠의 색과 재료가 사용자의 신분의 위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반상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18-19세기 조선왕실 행사에서 사용하였던 반과 상의 형태와 쓰임을 추적하는, 그 연구의 시작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의궤를 통해 당시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음식차림용 가구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현전하는 조선시대 ‘반’ 중에서 식반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에 대한 새로운 풀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표 1)은 논문을 위해 연구자가 참고한 의궤의 기록으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18-19세기 가례도감의궤와 진연, 진찬의궤의 목록이다.<sup>6)</sup>

【표 1】 참고 의궤 목록

연번	작성 시기	가례도감의궤	작성 시기	진찬, 진연 의궤
1	1719년 (숙종45)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1719년 (숙종45)	진연의궤
2	1727년 (영조3)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1744년 (영조20)	진연의궤

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의궤 종합정보>를 참고하였다.

3	1744년 (영조20)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1829년 (순조2)	진찬의궤
4	1759년 (영조3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848년 (헌종14)	진찬의궤
5	1802년 (순조2)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1868년 (고종5)	진찬의궤
6	1819년 (순조19)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1877년 (고종14)	진찬의궤
7	1837년 (헌종3)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1880년 (고종24)	진찬의궤
8	1845년 (헌종11)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1892년 (고종29)	진찬의궤
9	1852년 (철종3)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10	1866년 (고종3)	고종명성황후가례도감의궤		
11	1885년 (고종22)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		

## II. 반상의 형태와 용도

### 1. 찬안상(饌案床)과 고족상(高足床)

의궤에서는 음식차림용 가구로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과 같은 규모의 상차림 가구가 자주 등장한다. ‘상’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례도감의궤의 ‘동뢰연’ 도식에서 그 종류가 확인된다. 중앙에 마주 놓인 찬안상 2개를 비롯하여, 대선상(大膳床), 소선상(小膳床), 좌협상(左挾床), 우협상(右挾床), 연상(宴床), 면협상(面挾床)이 그것이다(도1, 도2). 도식에서는 사각의 상판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붉은 천을 씌워 마련하고 있다. 전통 가구에서 ‘상(床)’은 ‘상(牀)’과도 통용되는데, 상면(床面)이 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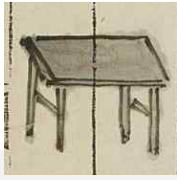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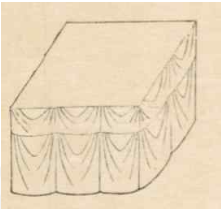

그 아래에 네 개의 다리가 달린 형태를 가리킨다.<sup>7)</sup> 그중 이 의궤에서 음식차림용 가구로 등장하는 '상'의 규모는 어떠한 형태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의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찬안상의 경우, 의궤에서 몇 가지의 도식에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표 2). 특히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의 찬안상 도설은 주목할 만하다. 【표 2】에 따르면 찬안상에는 흑칠이나 주칠이 칠해졌고 상 위에는 천을 씌웠으며, 1848년 진찬의궤를 보면 여러 개의 상을 붙여 하나로 사용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에서는 유일하게 찬안상의 규모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는데, 상판의 가로 길이가 1m이고 깊이는 60cm 정도이며, 높이도 60cm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높이 20-30cm의 조선의 식반과는 차이를 보인다. 넓고 높은 규모의 이러한 찬안상은 의궤에서 주변인 왕실가족에게만 진상되었다(표 7).

---

7) 『原本-역어유해(譯語類解)』, 국어국문학총림, 1988, pp.524-525.; 『才物譜』, 韓國學古辭典叢書,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80, p.632.; 평상, 한국의식주생활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9, p.698.

【표 2】 찬안상

의궤	정조효의왕후가례 청의궤(1762년) 흑칠찬안상 (黑漆饌案床)	진찬의궤(1829년) 흑칠찬안(黑漆饌案)	진찬의궤(1848년) 주칠고족찬안(朱漆高足饌案)
사용자	왕세손	세자궁	대왕대비
도식 (圖式)			
크기	길이 3척 5촌 너비 2척 4촌, 높이 2척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소입 (所入)	피나무 1립반, 추목 4조(條), 반조리(條里) 2개, 어교 2냥, 전칠 1승 6홉, 매칠 2홉, 골회 태말 각 2홉, 목적 5전, 저주지 반장, 백지 3장, 못 (冪丁) 60개	추목 1척 5촌, 피나무 7척 5촌, 전칠 4홉 6석, 매칠 1홉 5석	피나무 1립 반, 추목 조리목 4개, 1촌 5분 못 10개, 쌀 때 쓰는 백저포 8척, 전칠 4홉, 매칠 1홉, 왜주홍 9전

동뢰연 도식에 등장하는 찬안상 외의 ‘상’에 관해 의궤에서 각각의 형태나 크기, 재료 소입을 기록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들은 고족상 혹은 저족상의 형태로 제작되어 쓰임에 따라 명칭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찬안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찬안상과 고족상을 구분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찬안상과 고족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sup>8)</sup> 또 고족상은 가례도감의궤에서 연상(宴床) 등 동퇴연에 배설되는 각종 상으로도 활용되었다는 내용을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9)</sup>

이 고족상은 ‘고족(高足)’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다리가 달린’ 구조의 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족’은 상뿐 아니라 높이가 낮은 ‘반’에 붙기도 하여서 단지 ‘다리가 달린’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나, ‘다리가 달린’ 의미로는 문헌에서 ‘유족(有足)’이라 명칭하여 ‘고족’과는 구분된다.<sup>10)</sup> 1848년 진찬의궤의 ‘통명전상호일진별찬(通明殿上號日進別饌) 대왕 대비전 찬안상’에서 사용된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紅心黑邊彫刻高足大圓盤)>과 같이 반의 이름에 사용된 용례가 있으며, 도식과 함께 기록된 ‘나전고족반’도 있다.<sup>11)</sup> 하지만 반은 낮은 가구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판면이 넓거나 다리가 높은 가구를 가리키는 ‘상’과는 구별됨으로 고족상은 다리가 높고 판면이 넓어서 고족반과는 구별되는 형태였던 것이다.

고족상의 규모와 재료 소입에 관한 기록은 찬안상과 마찬가지로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 세손궁 기명에서 고족상의 도식을 찾아볼 수 있다(표 3). 도식이 앞서 본 찬안상과 비교할 때 상판이 매우 좁게 그려져 있으나, 그 규모를 보면 같은 의례에 사용되었던 찬안상보다 약간만 작은 규모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보는 고족상의 소입 재료를 보면, 고족상에 꾸밈에 쓰는 부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초엽(草葉)을 할 때 송판 반반골 4척 5촌 4편’라는 기록이 주목되는데, 초엽은 운각(雲刻)과 같은 부재로 천판 아래 붙는 부재로 전고하

8) <발해기록 4> 참조.


9) <발해기록 2> 참조.

10)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별공작의궤, 수본질에 ‘백골유족연갑(白骨有足履匣)’(나무로 만든 다리가 달린 버루를 넣는 상자) 등이 등장한다.

11) 【표 2】 ‘나전고족원반’ 형태 참조.

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부재로서, 고족상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1926년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 황칠고족상의 소입재료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sup>12)</sup>

【표 3】 고족상

의궤	정조효의왕후가례청의궤 (1762년) 흑칠고족상(黑漆高足床)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1759년)
도식 (圖式)		기록 없음
크기	길이 2척 7촌 너비 2척 5분 높이 2척 9촌	기록 없음

12)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1926)에서 황칠고족상의 소입재료에서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조선 시대를 벗어난 시기의 것이지만, 의궤의 체계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전 사료보다 자세한 기록을 부가한 내용도 있어서 참고자료로 붙여둔다.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 황칠고족상 소입재료, ‘黃漆高足床二十坐 每坐所入, 邊兒楸小條里木三尺二片 莫古里楸小條里木兩尺三寸片 腹板薄楸板長三尺 廣一尺 一片 帶楸木長兩尺 廣一寸四分 厚一寸 一片 足四楸木長兩尺九寸 廣各一寸四分 四片 槩六楸木長 兩尺三寸 厚廣各九分 六片 雲角薄楸板長三尺三寸 廣三寸五分 二片 朴只一寸五分 釘八箇...’

<p>소입 (所入)</p>	<p>파나무 1립, 추목판 2립 어교 4량, 전칠 4흡, 매칠 2흡</p>	<p>변아에 송판 반골 4척 5촌 4편, 판을 만들 때 송판 반골 4척 5촌 2편, 초엮을 할 때 송판 반반골 4척 5촌 4편 다리부재로 소소리목 3개 박이 1촌 짜리 못 25개, 칠할 때 반주홍 6량, 어교 3냥, 명유 3흡, 붙이는데 어교 1장</p>
--------------------	---	--

이상에서 조선왕실에서 행사를 위해 마련했던 음식차림용가구인 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날 조선 후기의 '상'이라 명명되는 가구들은 낮은 반의 형태와 혼용하여 사각상 혹은 다과상, 돌상 등으로 유물명을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의궤를 통해 찬안상과 고죽상의 도식과 소입재료를 살펴봄으로써, 반과 구별되는 형태의 '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 2. 반(盤)

연구자는 가례도감의궤와 진찬의궤를 통해서 '반'의 사용 용도를 3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상 위에 배설하는 반', 바닥에 앉은 사람 앞에 배설하는 높이가 20-30cm의 식반으로서 '좌식 높이의 식반', 음식을 나르는 운반 용도로 높이가 매우 낮고 상판이 좁은 '운반용 반'의 3가지이다. 그중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은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sup>13)</sup> 의궤를 통해 확인되는 쓰임으로서 주목된다.

13) '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앉은키 높이의 식반(食盤)이나 혹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것은 운반용 반, 다과상, 찻상 등으로만 한정하여 용도를 해석하였다. 최공호, 김미라,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p.54.

1) ‘상 위에 배설하는 반’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의 용도는 특히 가례도감에서 찾을 수 있다. 18-19세기 가례도감에서 음식차림용 가구에 대한 내용은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교적 자세하며 본 서술의 근거를 담고 있는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 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방 의례 ‘내자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발취기록 1>

① 대선상

- : 돼지 1 首
- : 소 뒷다리 1 隻
- : 소 1 首

② 소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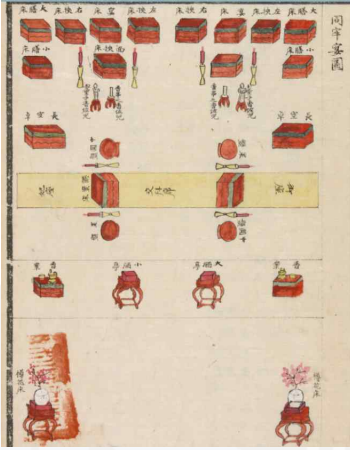
- : 양머리 1
- : 소 앞다리 (갈비까지 포함)
- : 오리 1首

이상 대소선상 4상에 합하여 올릴 때, 牛心 , 付花半部...牛肝半部, 白鹽 1升 등의 6종류.

이상을 담은 왜주홍칠 대반(大盤) 1죽, 왜주홍칠 소반(小盤) 1죽, 유기접시 2립.

<발취기록 1> ‘이상을 담은....’에서 언급되었듯이 왜주홍칠 대반과 소반은 대선상과 소선상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때 대반과 중반에 각각의 음식을 담아서 대선상과 소선상에 올렸다고 하였다. 그 담긴 내용물을 볼 때, 탕이나 국과 같은 것이 아니고 소와 양, 오리의 각 부위를 담은 비교적 큰 크기의 용기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동뢰연도를 보면, 대소선상이 각각 2개씩 배열됨으로 상은 모두 4개가 되고, 각 상마다 3개씩의 반을

올린다면 총 12개의 반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4개의 상에 음식 6종류가 올라간다면, 유기 접시 2개와 왜주홍칠 반 20개가 더해진 22개의 그릇 수는 대소선상을 차리기 위한 그릇 수로 유효한 개수가 된다(도1, 도2).



도 1. <동뢰연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1802)



도 2. <대선상과 소선상>  
(도 1)의 세부

대선상과 소선상 등의 '상' 형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은 의례에 <발취기록 2>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은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삼방소장(三房所掌) 동뢰연 기명 목록에서, 반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취한 내용이다.

<발취기록 2>

- ① 왜주홍칠 찬안상 2좌(별공작 조작진배)
- ② 당주홍칠 저족상 8좌(연상宴床。별공작 조작진배)
- ③ 왜주홍칠 대사방반(大四方盤) 2립(사용원 찬안상 所用)
- ④ 왜주홍칠 소사방반 6립(內入)
- ⑤ 왜주홍칠 소소사방반(小小四方盤) 2립(朝見禮時 所用)

- ⑥ 왜주홍칠 증원반 6립내 (4립 내자시 연상宴床 소용/ 2립 사용원 찬안 소용)
- ⑦ 왜주홍칠 소원반 6립내(4립 내자시 연상宴床 소용/ 2립 사용원 찬안 소용)
- ⑧ 왜주홍칠행과반 6립(사용원 찬안 소용)
- ⑨ 왜주홍칠수반 10립(내입)
- ⑩ 대소선소용 왜주홍칠 증원반 6립(내자시 대소선상大小膳床 소용)  
왜주홍칠 소원반 6립(상동)
- ⑪ 왜주홍칠 대선상 2좌
- ⑫ 왜주홍칠 소선상 2좌
- ⑬ 유대접시(鑰大貼匙) 3죽 내(19립 내자시 연상 소용/ 10립 사용원 찬안 소용)
- ⑭ 유대접시 1죽(사용원 찬안소용)
- ⑮ 유소개아 15립내(10립 내자시 연상소용/ 5립 사용원 찬안 소용)  
\* 그의 유기 그릇 다수 기록.
- ⑯ 흑칠대원반 2죽(내입)
- ⑰ 흑칠소원반 2죽(내입)

동뢰연에 필요한 위의 기명 목록 중에서 대소선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② 당주홍칠 저족상 8좌'이다. '① 왜주홍칠 찬안상 2좌'는 <도 1>에서 중앙에 놓인 2개의 테이블이며, 나머지는 저족상으로 분류하여 찬안상 보다 규모가 약간 작은 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또 '⑩ 대소선소용 왜주홍칠

---

14) 동뢰연도에 보이는 상의 개수는 총 12개인데 비해 기명질에는 상이 8개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기록의 착오이거나, 나머지 4개는 다른 공간에서 빌려 이동하였거나 수리 하여 재사용하였던 경우 등을 감안해 볼 수 있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 외가례도감에서도 동뢰연 기명으로 쓰인 찬안상은 2개로 동일하나, 그 외의 사용한 고족상이나 저족상의 개수는 명확하지 않거나 기록되더라도 그 숫자가 같지 않다. 동뢰연 도식이 등장하는 의궤인 현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의 동뢰연 도식에서, 상탁의 배설은 동일하지만 기록

중원반 6립(내자시 대소선상大小膳床 소용), 왜주홍칠 소원반 6립(상동)’의 내용 역시 대소선상 위에 원반이 올려짐을 기록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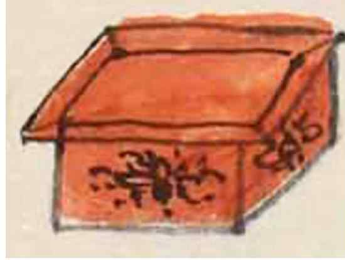
대소선상에 음식을 담은 ‘반’을 올리는 기록은 1719년(숙종 45) 진연의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19년(숙종 45) 진연의궤는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경축한 진연으로, 왕과 세자를 위해서 ‘과상(果床)’, ‘찬안상(饌案床)’, ‘별행과상(別行果床)’, ‘미수’, ‘대선’, ‘소선’의 상차림이 올려졌다.<sup>15)</sup> 대선과 소선을 위해 필요한 기명은 대선탁(大膳卓), 소선탁(小膳卓)이 쓰였고, ‘대전(大殿)에는 진홍칠(眞紅漆)을 한 대선(大膳) 중반(中盤) 3립, 소선(小膳) 소반(小盤) 3립’이 쓰였고, 세자궁의 경우에는 ‘진흑칠(眞黑漆)을 한 대선 중반 3립, 소선 소반 3립’이 쓰였다고 하였다. 즉 대선탁과 소선탁에 각각 중반과 소반을 올렸고, 진홍칠과 진흑칠로 대전과 세자의 신분에 차등을 둔 것이다. 그리고 ‘탁’은 본 논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대선탁과 소선탁과 같은 ‘탁’은 사각의 테이블로 상과 흡사한 규모의 가구를 가리킨다.<sup>16)</sup>

음식차림용 상에 올려두는 ‘반’의 용도를 살피기 위해, 동퇴연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삼방소장(三房所掌) 동퇴연 기명 목록’ 중에서 ‘③ 왜주홍칠 대사방반 2립(사용원 찬안상所用)’과 ‘⑤ 왜주홍칠 소소사방반 2립(朝見禮時 소용)’의 기록이 있다. 가례도감에서 사방반은 동퇴연과 조현례 등에서 반드시 사용했던 특별한 용도로

된 동퇴연 기명에는 찬안상은 2개이며 저족상은 8개만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추후 고찰이 더 필요하다.

- 15) 각 음식차림상 마다에 배설된 음식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것은 정희정, 「조선 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p. 76-100.을 참조.
- 16) 조선시대 문헌에서 ‘탁(卓)’은 ‘탁자(卓子)’라고도 하는데, 이때 방형의 판 아래 네 개의 방형 다리가 달린 형태의 목제 가구를 지칭한다. ‘탁(卓)’은 도자기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근래 전통목가구에 대한 명칭으로 ‘탁자’는 기둥에 여러 개의 층널을 걸친 높은 가구를 지칭하기도 한다.

제작되었고, 형태는 같지만 크기에 따라 ‘대, 소, 소소’로 구분하였다. 기명질에 필요 기명으로 각 가례도감의궤에 모두 명기되어 있고, 도식 부분에는 그림과 자세한 치수를 기록해 두었다(도 3).



도 3. 대사방반  
(1802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 1436년(세종 18)의 기사에 ‘빈의 조현’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이때 사방반을 탁자 위에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찬(司贊)이 단수(殿脩)를 담은 반(盤)을 빈에게 주면, 빈이 이를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왕비의 자리 앞에 두고, 빈이 꿇어앉아서 반(盤)을 탁자 위에 드리면, 왕비가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모두 견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sup>17)</sup>

여기서 ‘단수(殿脩)를 담은 반(盤)’은 ‘소소사방반’을 말한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3방 품목질에서 “양전의 조현례에서 단수포를 담은 소소사방반(...)”<sup>18)</sup> 라고 명시하여, ‘소소사방반’은 단수포를 담았던 용도였음을

17) 司贊以殿脩盤授嬪, 嬪受, 司賓引嬪升進王妃座前, 西向立, 尚食奉卓置於王妃座前, 嬪跪奠盤於桌上, 王妃撫之, 尚食盡撤以東, 司賓引嬪降復位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탁자 역시 상과 흡사한 가구로, 의궤에서는 '상탁'으로 분류하여 명칭하고 있으며, (도 1)의 '장공탁(長空卓)'의 형태에서도 탁이 상과 흡사한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사방반의 크기와 소입재료는 다음과 같다(<발취기록 3>).

<발취기록 3>

도설

: 소소사방반 모양은 대사방반과 같고, 사방 너비는 7촌 2분 변아(變兒)는 7분 다리 높이는 5분이고 예기척을 사용한다...

왜주홍칠 소소사방반 소입(조현례, 膶脩脯를 담을 때 사용)

: 북판에 얇은 피나무 길이와 너비는 8촌 1편, 사면을 에워싸는 판은 얇은 피나무 판 길이는 9촌 너비 2촌 4편, 네 면의 변아와 선을 두르는데 얇은 피나무 판 길이 1척 1촌 너비 2촌 4편, 다리에 얇은 피나무 판 길이 7촌 너비 2촌 4편, 어교 8전, 골회와 태말 각 1흡, 전칠 1흡, 매칠 5석, 왜주홍 2전, 싸기 위한 홍경광주 3폭 홀보자기 1건, 금전지 지금(紙金) 1장, 남용사 8분, 께 멜 때 홍진사 2분

즉 소소사방반은 사방 20cm가 넘는 정사각의 상판에, 다리 높이는 1.5c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아'의 부분은 상판 주변을 둘러 붙이는 부분으로, 같은 의궤에 크기는 달랐으나 형태는 같았던 대사방반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 3). 그리고 소입재료를 통해, 왜주홍의 고급 칠로 마무리한 특별한 소반이었음도 확인된다.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의궤에 1방 <사옹원> 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18) 兩典朝見禮教是時 膶脩脯 所盛 小小四方盤(...)

<발취기록 4>

① 嘉禮教是時同牢宴 四方盤二床每床四器

(가례할 때 동뢰연에서, 사방반 2상의 각 상에 4개의 그릇)  
각 상에는, 광어절 1그릇 (10마리), 문어절 1그릇 (3마리), 대구어절 1그릇(6마리), 채포절 1그릇(8근)을 둔다.<sup>19)</sup>

② 器皿秩

(기명질)

주홍대사방반<sup>20)</sup> 2립(도감 3방)...

③ 兩殿朝見禮果盤二床 (양전에 조현례 과반 2상)

단수포 2반

소소사방반 2립...

상탁은 동뢰연에서 사용한 찬안과 고족상을 차례대로 돌려쓴다<sup>21)</sup>

<발취기록 4> ③ ‘상탁은 동뢰연에서 사용한 찬안과 고족상을 차례대로 돌려쓴다’에서 역시 고족상 즉 다리가 높은 테이블 형태의 상을 상탁으로 사용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즉 왜주홍칠로 고급스럽게 제작되고 상판은 20cm 정도의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5cm 로 낮은 이 ‘소소사방반’은 운반용이나 다과용이 아니라 음식을 담아서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형태의 상탁 위에 배설된 ‘반’이었던 것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발취기록 4> ①, ② 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동뢰연을

19) 廣魚折 1器式 2器 (每器 10尾) 文魚折 1器式 2器(每器 3尾) 大口魚折 1器式 2器(每器 6尾) 快脯折 1器式 2器(每器 8斤)

20)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에 ‘대사방반’은 “방형으로 너비가 2척이고, 변아가 1촌, 다리 높이가 5촌, 다리 너비가 1척 5촌, 각 면에는 태평화(太平花)가 조각되어 있고, 왜주홍칠에 예기척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21) 服脩脯二盤 小小四方盤二立...床卓(以同牢宴所用饌案及高足床次次移用)

치를 때 동뢰연도에서 보는 중앙의 찬안상에 대사방반을 올려놓았을 가능성도 설명해준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전교(傳敎)에서는 연상, 좌협상, 우협상, 면협상, 미수사방반(味數四方盤) 2상, 중원반 2상, 과반 6상, 초미(初味) 2상, 이미(二味) 2상, 삼미(三味) 2상에 올릴 갖가지 음식 종류를 상세히 적고, 이어서 동뢰연 기명이 다시 언급되는데(<발취기록 5>), 여기에서 '미수사방반' 이 바로 찬안상에 올려지는 사방반이 된다. <도 1> 동뢰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설명된다. 연상, 좌협상, 우협상, 면협상은 이미 배설되어 있으며, 중원반과 과반 역시 찬안상 곁에 배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수사방반'과 '초미', '이미', '삼미'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찬안상에 놓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추론이기 때문이다. 전교의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동뢰연 기명기록 <발취기록 5> 에서 미수사방반이 2상이 차려지는 것은 발취기록에서 보듯이 찬안상이 2좌로 놓여지기 때문이다. 또 <발취기록 2> '③ 왜주홍칠 대사방반(大四方盤) 2립(사용원 찬안상 所用)'에서 대사방반을 찬안상 소용으로 기록한 것 역시, 대사방반을 찬안상에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의 타당성을 말해준다.

<발취기록 5>

- ① 왜주홍칠 찬안상 2좌
- ② 왜주홍칠 장상(長床) 2좌
- ③ 당주홍칠 저족상 6좌
- ④ 왜주홍칠 사방반 2립
- ⑤ 왜주홍칠 소사방반 6립
- ⑥ 왜주홍칠 중원반 6립
- ⑦ 왜주홍칠 소원반 6립
- ⑧ 왜주홍칠행과반 6립
- ⑨ 왜주홍칠수반 10립

⑩ 대소선소용 왜주홍칠 증원반 6립  
왜주홍칠 소원반 6립

즉 고급스러운 왜주홍칠로 제작되었고, 상판은 사방이 2척으로 너비와 길이가 60cm 정도의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약 15cm 정도인 대사방반을<sup>22)</sup> '상 위에 배설하는 반'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지금까지 '상 위에 배설하는 반'에 쓰임에 관해 논하였다. 요약하면, 가례의 동퇴연에서 대선상, 소선상 혹은 조현례에 상탁이라는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형태의 고족상 위에 각각 증원반, 소원반, 소소사방반이 올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퇴연에 사용된 대사방반 역시 찬안상 소용으로서 찬안상 위에 배설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까지 살펴보았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발취기록 2> ⑥, ⑦의 연상 소용의 왜주홍칠반 역시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고려대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신사명 원반>은 지름이 18.6cm이고, 높이가 7.4cm이다(도4, 도5). <신사명 원반>은 일반적인 식반의 높이가 20-30cm인 것에 비해 7.4cm로 매우 낮고 지름 역시 일반적인 식반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붉은 주칠이 되어 있어 궁중에서 특별한 용도로 제작된 '반'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뒷면의 명문에 의하면, '신사년에 대중소 크기로 15죽 즉 150개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2) 주20) 참조



도 4. <주축철 한글 「신사년」명 원반>, 지름 18.6cm 높이 7.4cm  
국립중앙박물관(구 4567)



도 5. (도 5)의 뒷면 '신사 큰전 곳간 대중소 15죽' 명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도 흡사한 형태의 원반이 전하고 있다(도6). <신사명 원반>과 흡사하나 상판은 35cm로 넓게 제작되었다. 이 역시 궁중에서 특별한 용도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반들은 일반적인 식반의 규모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같은 크기의 것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제작된 것이다.



도 6. 주철원반, 높이 9.3cm, 지름 3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궁중행사에서 이러한 반이 사용되었다면,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궁중 행사에서 위계가 낮은 신하들에게 배설되는 상차림 반이 거나<sup>23)</sup>, 바로 앞서 언급했던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의 용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사명 원반>의 상판은 접시 형태로 중앙이 오목하여 음식을 담기에 적당한 형태이며, 18.6cm의 좁은 상판은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대 박물관 소장의 주철원반은 지름은 식반의 너비를 하고 있으나 9.3cm의 낮은 높이로, 앞서 언급한 대선상 소용으로 소원반이 아닌 중원반(<발취기록 2> ⑩)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의 용도로도 가능성이 있다.

‘반’은 사용처에 따라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로만 국한시키거나 유물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며, 이것은 앞서 <신사명 원반> 등에서 보았듯이 현존 유물의 용도 해석에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 2) ‘좌식 높이의 식반’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음식차림용 가구, 즉 30cm 정도 높이의 식반용 ‘반’을 논문에서는 ‘좌식 높이의 식반’으로 명칭하였다. 이러한 식반의 경우 의례에서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포함된 명칭, 사용자, 사용처 그리고 도식이 있는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1848년(헌종14) 진찬의례에서 그러한 예가 확인된다.

‘통명전정일진찬(通明殿正日進饌) 대왕대비전 찬안상’에 45기의 유기(鑪器)와 갑번자기 그리고 ‘주칠고족찬안 6좌’가 소용되었다. 주칠로 장식된 높은 사각 테이블 형태인 고족 찬안 6개 위에 45개의 음식 그릇을 진상한

---

23) 1719년(숙종 45) 진연의례에서 시위군(侍衛軍)과 각차비(各差備)에게 준비되는 음식 차림용가구로 중운족반(中雲足盤)이 사용되었으며, 1848년 진찬의례에서도 궐내입 직관원이나 별대령이하 사찬에게 주칠운족반이 배설되었다. 본 논문 <도 9> 왜반형태와도 비교할 수 있어, 내빈이나 여관에게 반지를 내릴 때 사용한 왜반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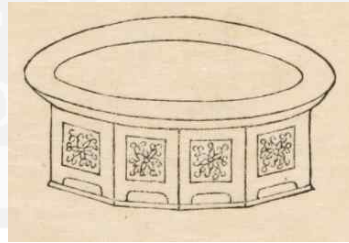
것이다.<sup>24)</sup>

이와 비교하여, '통명전상호일진별찬(通明殿上號日進別饌) 대왕대비전 찬안상'에는 22기의 유기와 당화기(唐畫器) 그리고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紅心黑邊彫刻 高足大圓盤)'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은 앞서 본 고족 찬안 6좌에 놓였던 음식 가짓수 45개에 비해 22개로 적게 놓였지만, 원반의 상판 크기는 일반 사가(私家)의 식반에 비해 꽤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전하는 궁중소반에서도 확인된다.<sup>25)</sup>

같은 의궤 '통명전야진찬(通明殿夜進饌), 통명전익일회작도(通明殿翌日會酌圖), 익일야연도(翌日夜讌圖)의 대왕대비전 찬안상'도 역시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도식으로도 남아 있다(도 7, 도 8).



도 7. 현종무신진찬의궤(1848년)  
익일회작도(翌日會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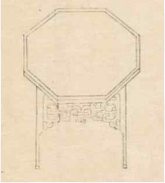

도 8. 현종무신진찬의궤(1848년)  
<조각대원반(彫刻大圓盤)>

24) 같은 의궤의 '도식'에서 '통명전진찬도'에서 '찬안'의 명명과 사각의 넓은 상에 음식이 놓여 있는 그림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고족 찬안'은 넓은 사각의 형태이며, 6좌라고 했던 것은 6개를 함께 이어 놓고 그 위에 천을 두른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민속94644)의 원반(圓盤)은 높이 30.5에 너비가 71cm이다.

즉 사용자와 사용처, 형태, 명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 7>의 익일회작도의 진찬 장면에서 대왕대비자리에 놓인 원반의 형태가 확인되며,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한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에 해당한다. <도 8>은 <조각대원반>이라고만 명명하였으나, 홍심부분과 흑변부분을 나눠 표시한 상판으로 보아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도식과 실제 본문의 명칭이 약간 차이가 보이는 것은 의례에서 종종 확인된다.<sup>26)</sup> 왕실 가족에게 진상되었던 바닥에 앉아서 대접받는 높이의 ‘식반’의 도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표4).

【표 4】 좌식 높이의 ‘식반’

(1829년) 진작의례 야진찬연 왕세자 찬안	(1829년) 진찬의례 자경전 야진찬연 대전 찬안	(1828년)순조무자진작의례 대전과 중궁전 소선 찬안
		
홍심흑변팔우반 (紅心黑邊八隅盤)	주칠대원반(朱漆大圓盤)	나전고족원반 (螺鈿高足圓盤)

26) 1829년(순조29) 진찬의례의 도식에서 ‘홍심흑변팔우반(紅心黑邊八隅盤)’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사용처는 야진찬연 배설위차(排設位次)에 왕세자 찬안에 사용되었던 음식 차림 반으로, ‘홍심흑칠팔우원반’을 도식에서는 ‘원반’의 형태 표기는 생략하고 ‘홍심흑변팔우반’으로만 기록하였다. 또 1828년(순조28) 진작의례 찬품(饌品)에 대전과 중궁전 진어소선(進御小善)에서 ‘홍칠나전삼족원반(紅漆螺鈿三足圓盤)’, 자경전 야진별반과에서 대전과 중궁전에 진설된 ‘주홍나전삼족원반’은 잔치에서 왕실가족에게만 진상된 특별한 장식된 형태로서 역시 도식이 실려있는데, 도식에서는 ‘나전고족원반(螺鈿高足圓盤)’으로 기록하여 ‘삼족’의 형태 표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림을 보면 세 개의 다리가 그려져 있어 삼족반을 그려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례에서 본문과 기명의 도식의 명칭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도의 '반'은 명확한 사용처와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궁중 식반의 예시로서 주목된다.

### 3) '운반용 반'

운반용 반에 관한 의궤의 기록이나 도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운반용 반의 설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을 남겨 놓은 기록은 1719년(숙종 45) 진연의궤에서 '내왕반(來往盤)' 기록을 볼 수 있다. '내왕반'은 음식을 담아 오고 가는 운반용 반의 이름이다. 그 형태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같은 의궤 2방에서 내왕반의 소입 재료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내왕반(來往盤)

송연(松煙)과 명유(明油)로 칠을 하였고, 백골은 '평반(平盤)'으로 만들었으며, 진연을 위해 25죽 즉 250개를 사용했다<sup>27)</sup>

위 기록에서, 백골은 칠하기 전의 나무 뼈대를 말하는 것으로, 평반이라 하여 반 아래 다리 높이가 거의 없는 쟁반 형태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한 안료 없이 송연과 명유만을 써서, 겉을 검게 칠했으며, 명유라는 기름칠을 하여 옷칠과는 구별되는 저렴한 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50개의 많은 수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얇은 쟁반형으로 제작되었고, 외관은 주칠이나 흑칠과 같은 옷칠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꺼번에 몇십 죽(竹) 즉 몇백 개씩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량이 제작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사실인데, 왕실 가족이나 주요 내외빈을 위한 음식차림용 가구로서의 반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수량의 제작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

27) 來往盤二十五竹無回徵出每立新造所入 白骨平盤一立式 松煙一匁五分式 阿膠一匁式 太末一合五勺式 骨灰三合式 魚膠一匁五分式 明油五勺式

### Ⅲ. 위계에 따른 칠의 사용과 반상의 쓰임

1848년 진찬의례의 기용(器用)에 행사에 쓰는 소반의 종류로 ‘흑진칠중원반과 소원반의 수는 각각 14족 8립, 2족 7립, 흑칠 소원반 5족 8립, 당주홍칠 소원반 14족 4립, 주칠 소원반 1족 3립, 왜주홍칠 소원반 2족 2립’라고 기록되어 있다. 형태는 같은 소원반 종류이지만 흑진칠, 흑칠, 당주홍칠, 주칠, 왜주홍칠로 명확히 나누어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상의 쓰임은 칠에 따라서도 구분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용도에 따른 칠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례를 통해서 음식차림용 가구의 신분에 따른 구분은 조시내의 대한제국기 연향용 가구 연구에서 일부 다뤄진 바 있다.<sup>28)</sup> 논문에서는 대한제국기에 한정하여 6번의 진찬 혹은 진연에서 각 사용자들이 사용한 음식차림용 가구기록을 발췌하고 차등이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 논고에서는 18-19세기 궁중 잔치에서 각 사용자에 따른 반상의 사용과 그 반상의 칠의 구분 그리고 칠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위계에 따른 반상의 쓰임에 관해 칠 사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명확한 차등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논의점으로 추가하여, 앞으로의 과제임을 제기 할 뿐 아니라 붉은칠색이나 검은칠의 단순한 구분이 사용자 신분과 직결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인용할 의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8-19세기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가례도감의례(嘉禮都監儀軌)와 진연(進宴), 진찬의례(進饌儀軌)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반상들을 살펴보고, 논문에서는 그중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며 본 논문의 취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담고 있는 1719년(숙종45) 진연의례, 1848년(헌종14) 진찬의례를 중심으로 본 장을 서술하고자 한다.

왕과 왕비가 쓰는 함 등 목제 가구는 주칠을 하고 왕세자 이하가 쓰는

28)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33-38.

것은 흑칠을 했는데, 옥책이나 죽책을 담았던 함의 칠은 법령에서도 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sup>29)</sup> 조선왕실의 행사에서는 위계에 따른 주칠과 흑칠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철저히 따랐다. 음식차림용 가구에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되었다.<sup>30)</sup>

위계에 따른 반상의 종류와 칠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1719년(숙종45) 진연의궤와 1848년(헌종14) 진찬의궤를 예시로 들어, 사용자와 그 가구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의궤 중에서도 진연 혹은 진찬의궤에 반상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등장하며, 그중에서도 이 2개의 의궤는 신분의 차등에 따른 음식차림용 가구 종류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다(표 5).

【표 5】 진연의궤 속 음식차림용 반상의 사용

1719년(숙종 45) 진연의궤				
사용자	높은 상	칠	낮은 반	칠
대전 (大殿)	과상 (果床)	왜주홍가칠		
	찬안상 (饌案床)	홍진칠		

- 29) 經國大典註解, 玉竹冊, “임금 및 왕비는 ‘玉冊’을 쓰고, 세자 및 빈은 ‘竹冊’을 쓴다”; 국조상례보편, 청시종묘, 내함 “왜주칠(倭朱漆)을 한다. 소상(小喪), 소내상(小內喪)에는 흑진칠(黑眞漆)을 한다”; 春官通考 竹冊函 “內函, 尺數, 從竹冊容入, 內塗紅錦, 外黑漆”
- 30) 왕세자 가례도감의궤 동퇴연 배치도를 보면, 가구들이 흑칠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왕위에 올라 진행된 가례도감에서의 가구는 주칠로 제작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동퇴연 도식의 대주정이나 소주정, 준화상이 붉은 칠로 장식되는 반면, 순종순명왕후가례도감의궤 동퇴연 도식에서는 가구들은 흑칠로 되어 있다. 이는 정조가 순조의 가례를 결정하였으나, 행사 이전에 승하함으로 순조는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가례를 치렀기 때문에 주칠을 쓰게 된 것이며, 1882년(고종 19) 순종순명왕후 가례의 경우는 당시 세자였던 순종의 가례였으므로, 흑칠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대선탁 (大膳卓)	왜주홍가칠	중반(중반) 3립	진홍칠
	소선탁 (小善卓)	홍가칠	소반(소반) 3립	진홍칠
<b>세자궁</b> (世子宮)	찬안상 (饌案床)	흑진칠		
	대선탁 (大膳卓)	(기록없음)	중반 3립	진흑칠
	소선탁 (小善卓)	흑진칠	소반 3립	진흑칠
<b>외선</b> (外宣): 외선상 (外宣床) 140상			대운족반 <(味數盤+體盤) +채반 50립> 330립	흑가칠
<b>시위군</b> (侍衛軍): 시위 별선상 (侍衛別宣床) 35상			중운족반 72립	흑가칠
<b>각차비</b> (各差備): 별선상지차 (別宣床之次):37 상				
<b>운반용 반</b>			내왕반 (來往盤) 250립	흑가칠

표에서 먼저 ‘높은 상’에 칠해진 칠을 보면, 왕에게 배설되는 음식차림용 가구는 ‘붉은 칠’로 하고, 왕세자에게 배설되는 음식차림용 가구는 ‘검은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상’에 해당하는 음식차림용 가구는 대전과 세자궁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었음도 확인된다. 외선상과 별선상에도 ‘상(床)’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가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차림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실제 사용한 것은 낮은 높이의 '반'이었고, 외선상과 별선상에 상탁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이 의궤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에서 보는 칠의 종류는 홍가칠(紅假漆), 왜주홍가칠, 홍진칠(紅眞漆 혹은 진홍칠), 흑가칠(黑假漆), 흑진칠의 5가지이다. 이에 주목하여 같은 의궤에서 각 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소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진연의궤 속 위계에 따른 칠 구분

진연의궤(1719년 (숙종 45))				
사용자	칠 (높은 상)	재료 소입	칠 (낮은 반)	재료 소입
대전 (大殿)	왜주홍가칠 (과상)	왜주홍(倭朱紅) 1냥 7전, 주토(朱土) 2홉, 명유(明油) 1홉, 아교(阿膠) 2전		
	홍진칠 (찬안상)			
	왜주홍가칠 (대선탁)		진홍칠 (眞(朱)紅漆) 중반(中盤)	태말(太末) 1승, 골회(骨灰) 1승, 어교(魚膠) 3전, 과저포(裴苧布) 4척 5촌, 왜주홍(倭朱紅) 8전, 진말(眞末) 3홉, 전칠(全漆) 3홉 5석, 매칠(每漆) 8석

31) 대운족반 소입과 비교할 때, 내왕반은 대운족반에 비해 사용된 부재의 크기나 종류가 적다. 내왕반은 대운족반에 비해 단순하고 작은 형태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홍가칠 (소선탕)		진홍칠 소반(小盤)	태말(太末) 7홉, 골회(骨灰) 1승, 어교(魚膠) 2전, 과저포(裴苧布) 3척 5촌, 왜주홍(倭朱紅) 5전, 진말(眞末) 2홉, 전칠(全漆) 2홉 5석, 매칠(每漆) 5석
<b>세자궁</b> (世子宮)	흑진칠 (찬안상)			
	(기록없음) (대선탕)		진흑칠 (중반)	태말(太末) 1승, 골회(骨灰) 1승, 어교(魚膠) 3전, 과저포(裴苧布) 4척 5촌, 진말(眞末) 3홉, 전칠(全漆) 3홉, 매칠(每漆) 4석
	흑진칠 (소선탕)		진흑칠 (소반)	
<b>외선</b> (外宣): 외선상 (外宣床) 140상			흑가칠 (대운족반 (大雲足盤))	아교(阿膠) 2전, 태말(太末) 3홉, 송연(松煙) 3전, 골회(骨灰) 5홉, 어교(魚膠) 3전, 명유(明油) 1홉
<b>시위군</b> (侍衛軍): 시위별선상 (侍衛別宣床) 35상			흑가칠 (중운족반 (中雲足盤))	아교(阿膠) 1전, 태말(太末) 2홉, 송연(松煙) 2전, 골회(骨灰) 3홉, 어교(魚膠) 2전, 명유(明油) 5석
<b>각차비</b> (各差備): 별선상지차 (別宣床之次) 37상				

<p>운반용 반 : 250립</p>			<p>흑가칠 (내왕반 (來往盤), 평반(平盤))</p>	<p>아교(阿膠) 1전, 태말(太末) 1흡, 송연(松煙) 1전 5분 , 골회(骨灰) 3흡, 어교(魚膠)1전 5분, 명유(明油) 5석<sup>31)</sup></p>
-------------------------	--	--	--	---

【표 6】 보는 ‘가칠(假漆)’은 옷칠과 구별되는 밑바탕 칠이며<sup>32)</sup>, ‘매칠’과 ‘전칠’은 상칠(上柴)하는 고급 옷칠에 해당한다.<sup>33)</sup>

흑진칠은 전칠과 매칠로 완성이 되었고, 홍진칠인 경우에는 왜주홍의 안료를 넣어 색을 표현하면서 역시 전칠과 매칠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흑가칠은 홍진칠과 비교하여 매칠과 전칠을 하지 않고 기름칠인 명유를 사용하였고, 안료도 주홍이 아닌 붉은 흙인 주토를 사용하여 고급 옷칠과 구별되는 칠임을 알 수 있다.

흑가칠도 역시 매칠과 전칠을 사용하지 않았고, 송연(松煙)과 명유만을 사용하여, 고급 옷칠을 사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종합하면 ‘가칠’은 주토나 송연으로 붉은색 혹은 검은색을 내지만, 옷칠이 사용된 주홍칠이나 흑칠과는 차등이 있는 칠이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32) 승정원일기 1634(인조 12) “상의원(尙衣院)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사(詔使)가 올 때 상탁(牀卓)과 반기(盤器)는 전에는 예전 것을 썼습니다. 주홍(朱紅)이 부서져 내린 곳은 지금 막 보수하였는데, 방금 사용원에서 보낸 이문을 보니 어전에서 쓸 것은 모두 검은 옷칠을 한 것으로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옷칠을 하는 것은 들어가는 공력이 아주 크니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예전 것을 쓰면서 가칠(假漆)하면 비용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테지만, 어전(御前)에서 쓰일 막중한 물건을 감히 이렇게 구차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라는 기록이 있다.

3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내함에 관해 의궤에 형태와 재료, 도식의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 주목된다. 기록에 의하면, 붉은 옥책 내함은 주홍의 안료를 칠하고 전칠(叀漆), 매칠(每漆)로 상칠(上柴) 하였다고 하며, 전하는 유물은 붉은색의 옷칠로 완성되어 있다.

‘흑진칠(黑眞漆)’ 혹은 ‘홍진칠(紅眞漆)’ 등은 고급 옷칠을 가리키는 명칭하는 것으로 매칠, 전칠과 같은 상칠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문헌에서 ‘주칠(朱漆)’ 혹은 ‘흑칠(黑漆)’로 명명되는 경우라도 그 재료소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급 옷칠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의궤에서 ‘주칠’이나 ‘흑칠’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그 재료소입에는 전칠과 매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1848년(헌종 14) 진찬의궤에서는 신분에 따른 음식차림용 가구의 구분이 보다 세분화 되어있다.<sup>34)</sup> 직분의 고하에 따라 음식차림용 가구의 높이에 차등을 두거나, 붉은 주칠이더라도 왜주홍칠과 당주홍칠의 차등이 보이고, 혹은 기명에 같은 ‘자기’를 사용하더라도 자기전과 사기전의 제작소를 구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그 차등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어 표를 붙인다(표 7).

**<1848년(헌종 14) 진찬의궤에서 보는 신분에 따른 음식차림용 반상>**

- ①주칠고족찬안(왜주홍칠)- ②주칠저족찬안(당주홍칠)- ③자기(자기전)와 흑칠대원반- ④고족자기(사기전)와 흑칠대원반- ⑤고족자기(사기전) 주칠운족반- ⑥고족자기(사기전) 주칠운족반- ⑦우판(隅板)<sup>35)</sup>

①주칠고족찬안(왜주홍칠)이 가장 위계가 높은 신분에게 배설되는 음식차림용 가구이며, ⑦우판(隅板)이 신분은 낮은 사람에게 배설되었던 음식차림

34) 대왕대비 미수(갑번자기와 주칠소원반), 소선(갑번자기 주칠소원반), 염수(갑번자기, 주칠소원반), 탕(同一), 만두(同一), 진다(은다구와 주칠소원반), 별찬안(20기 유기 당화기, 홍심흑번조각고족대원반)과 내진헌찬안(39기 유기 갑번자기 흑칠대원반 5좌)은 신분에 따른 차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35) 우판은 나무판 아래에 판각의 다리가 달린 형태의 목판이다. 국조오례통편에 의하면, “잠기를 담는 것으로 소나무로 만들며 사방이 3척이고 높이가 5촌이며 우판(隅板)과 같은 형태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친잠의궤에 도설이 전한다.



용 기구로 내림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같은 붉은 칠이라도 왜주홍칠보다 당주홍칠이 낮은 위계에 쓰였으며, 주칠이더라도 크기와 높이에서 차등을 두어 신분을 구별하였다.

【표 7】 진찬의궤 속 위계에 따른 칠 구분

1848년(헌종 14) 진찬의궤 通明殿正日進饌	
대왕대비전 찬안(饌案) <sup>36)</sup>	45기) 유기(鑪器), 갑번자기(甲幡磁器) 주칠고족찬안 6좌(왜주홍, 전칠, 매칠)
대전중궁전 찬안	26기) 유기, 갑번자기 주칠저족찬안 각 4좌 (당주홍, 전칠, 매칠)
순화궁(경빈김씨) 찬안	26기) 유기, 갑번자기 주칠저족찬안 각 4좌 (당주홍, 전칠, 매칠)
내외빈상/진찬소당랑상상 (進饌所堂郎上床)	19기) 자기, 흑칠대원반(전칠, 매칠) 총 81상
문안제신반사연상 (問安諸臣頒賜宴床)	대신과 제신상상(諸臣上床):19기) 자기(磁器塵), 흑칠대원반 총19상 제신중상(諸臣中床):17기) 고족자기(沙器塵), 흑칠대원반 총101상
궐내입직관원이상반사연상 (闕內入直官員以下頒賜宴床) 궐내입직관원이하반사하상 (闕內入直官員以下頒賜下床)	12기) 고족자기(사기전), 주칠운족반 총 24상
별대령이하반사상 <sup>37)</sup> (別待令以下頒賜床)	12기) 고족자기(사기전), 주칠운족반 총 18상
내시, 각처입직장관장교원역별 감 악공여령등 사찬 (內侍及各處入直將官將校員役 別監樂工女伶等賜饌)	상) 흑칠왜반 하) 황칠소우판/대우판/중우판 <sup>38)</sup>
각소입직군병, 숙수등 궐찬 各所入直軍兵及熟手等饋饌	(기명 기록 없음)

1848년(헌종 14) 진찬의궤 通明殿夜進饌	
대왕대비전 찬안	22기) 유기(鑪器) 당화기(唐畫器)와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 (紅心黑邊彫刻高足大圓盤)
대전 찬안	21기) 유기 당화기와 농단고족대팔우반(濃丹高足大八隅盤)
1848년(헌종 14) 진찬의궤 通明殿翌日會酌	
대전 찬안	23기) 유기 당화기, 주칠저족찬안(朱漆底足饌案) 1좌(왜주홍, 전칠, 매 칠)
대왕대비전 찬안	19기) 유기 당화기, 홍심흑변조각고족대원반
내빈과 진찬소당랑 반지(盤只)와 연상(宴床)	내빈: 흑칠왜반 (64盤只 <sup>39)</sup> )/ 진찬소당랑 (14상) :19기) 자기와 흑칠대원반
제신반사상상 諸臣頒賜上床	19기) 자기, 흑칠대원반 총 6상
총위영장관이하반사중상 摠衛營將官以下頒賜中床	17기) 고족자기(沙器塵), 흑칠대원반 총 13상
별대령이하반사상 別待令以下頒賜床	12기) 고족자기(사기전), 주칠운족반 총 17상
여관이하장교원역악공여령등 사찬 女官以下將校員役樂工女伶等賜 饌	여관상반(女官) 반지 80상: 내빈 반지(盤只, 흑칠왜 반)와 동일 /그 외는 우판(隅板)
진찬의궤(1848년(헌종 14)) 通明殿翌日夜饌	
대전 찬안	23기) 유기 당화기, 주칠저족찬안(朱漆底足饌案) 1좌

36) 의궤의 도식 중에 ‘통명전진찬도’에 찬안 형태가 확인된다.

37) ‘별대령석거청총위영장관장교각차비폐장만사연상(別待令石渠廳摠衛營將官將校各差備牌將頒賜宴床)’의 줄임말.

38) 여기에 황칠은 ‘괴화수(槐花水, 노란색이 나는 염료)’를 쓴 것으로 보인다. 진찬의궤 (1848년) 2책 품목지에서 흡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우판(耳隅板)”의 설명에 괴화수로 칠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진찬의궤(1848년(헌종 14)) 通明殿正日進別行果	
대왕대비전	20기) 유기 자기, 찬안, 좌우 협안 2좌
대전 중궁전	각) 15기) 유기 자기, 찬안
순화궁	15기) 유기 자기, 찬안

그런데 【표 7】에서 신분에 따라 차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 연구자는 일단 논의점을 서술하여 반상의 쓰임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통명전정일진찬(通明殿正日進饌)>에서, 문안제신반사연상(問安諸臣頒賜宴床)으로 ‘흑칠대원반’을 배설하고 궐내입직관원이상반사연상(闕內入直官員以下頒賜宴床)으로는 ‘주칠운족반’을 배설하였다는 내용은 매우 주목된다.

이것은 명칭에서만 보면, 보다 낮은 신분에게 오히려 주칠한 상을 배설하여 주칠 가구는 위계가 높은 신분에게 사용된다는 규범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의궤 기용(器用)을 보면, 흑칠대원반은 전칠과 매칠을 사용한 고급의 옷칠을 칠한 것인데 주칠운족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명칭만 실려있어서, 어떠한 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다른 진찬의궤를 통해서도 역시 신하들에게 배설되었던 주칠운족반의 재료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궐내입직관원이상반사연상’ 등 위계가 낮은 신분에게 배설되었던 ‘주칠운족반’은 일본산인 왜주홍이 아니라, 당주홍이나 국산의 ‘주홍’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흑칠대원반에 비해 좁고 낮은 소반일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국산의 주홍은 당주홍이나 왜주홍과 비교하여 가격이 비싸지 않아, 경비 절감을 위해 국산의 주홍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39) ‘반지(盤只)’는 잔치 후 나눠 주는 음식을 명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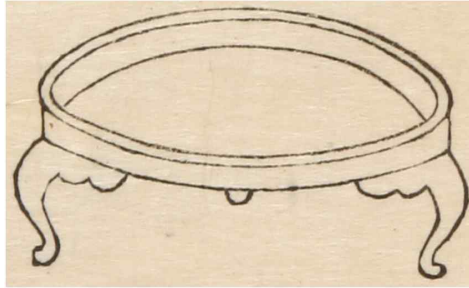
기록이 전한다.<sup>40)</sup> 조선왕조실록 1616년(광해군 8) 4월 23일 기사에 ‘상탁(床卓) 등의 경우, 어용(御用)은 주묵정칠(朱墨正漆)을 쓰고 공가에서 두루 쓰는 것은 구워 만든 데다 주홍(朱紅) 및 잡흑(雜黑)의 칠(漆)을 사용하고 사대부도 주흑잡칠(朱黑雜漆)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인(庶人)은 역청(瀝靑) 등의 칠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라는 내용은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장식을 외관을 장식하지만 그 재료 성분은 신분에 따라서 일찍이 차등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흑칠대원반을 사용한 신분보다 낮은 신분에게 배설된 ‘주칠운족반’의 경우는 고급 흑칠보다 질이 좋지 않은 붉은 칠을 사용했거나, 흑칠대원반보다 높이가 매우 낮아 그 위계를 표현했을 경우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표 7】에서 특이점은 또 나타난다. <통명전익일회작(通明殿翌日會酌)>에서 내빈 반지(盤只) 음식에 ‘흑칠왜반(黑漆倭盤)’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여관(女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신분 위계와 사용한 반의 차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도 9). 왜반의 형태는 도식에서 그 형태가 확인된다. 의례의 도식은 대부분 중요도가 있는 기명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에서 볼 때, 낮은 신분이거나 혹은 행사에서 역할이 적었던 신하에게 내려진 음식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40) 1617년(광해군 9) 6월 25일 기사에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당주홍(唐朱紅) 6백근의 값을 헤아려보니 60동이나 되어 무역해 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홍(朱紅)으로 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라는 기록이 있다.



도 9. (1848년) 진찬의궤, 왜반(倭盤)

즉 고급왜주홍칠은 높은 신분의 사용자의 음식 차림용 가구에 사용되었고, 그 이하는 높이나 재료에 차례로 차등을 주어 구분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의궤에서 그 신분의 차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 주철이나 흑칠의 명칭만으로는 그 재료까지 완전한 파악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분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서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점은 앞으로 밝혀 낼 과제일 뿐 아니라, 붉은 칠이나 검은 칠의 단순한 구분이 궁중행사의 사용자 신분과 반드시 직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 IV. 맺음말

조선왕실 행사 기록 중에 음식 차림용 가구들을 가장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진찬의궤와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음식 차림용 가구인 반상(盤床)의 쓰임과 형태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통 음식차림용 가구로 '반'은 높이 20-30cm의 '소반'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궤를 통해서 '상 위에 배설하는 반'의 용도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왜주홍칠 원반' 즉 붉은 고급옷칠을 한 둥근형태의 반에 음식을 담아서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형태의 ‘상’에 배설하였던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 위에 배설하는 반’과 그 외 ‘좌식 높이의 식반’과 ‘운반용 반’으로 나누어 왕실 행사에서 사용한 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서 식반(食盤) 외에 오늘날 대부분 다과상이나 찻상 등으로만 여겨졌던 ‘반’, 특히 주칠로 된 경우, 그 용도 해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의궤에 등장하는 수많은 ‘반’을 읽어 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의궤에서 보이는 음식차림용 가구에는 이러한 높이가 낮은 ‘반’ 뿐 아니라, ‘오늘날 연회용 테이블’ 형태의 ‘상’도 자주 등장하였는데, 논문에서는 가례도감의궤의 동퇴연도를 중심으로 찬안상과 고족상의 형태와 도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오늘날 낮은 반 형태로 한정되어 알려진 전통 음식차림용가구가 보다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이어서 반상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 표면의 칠과 신분의 위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옷칠에 안료로 색을 낸 주칠과 흑칠이 가구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고급 옷칠이다. 하지만 붉은 칠 종류에는 홍가칠, 혹은 검은 칠 종류에는 흑가칠과 같이 옷칠을 쓰지 않고 주토나 송연만을 써서 색을 내기도 하였으며, 혹은 주칠에 있어서도 신분에 따라 왜주홍, 당주홍 등 차등을 두었다. 즉 칠 재료의 차이는 신분의 차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반상의 당시 용도와 형태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공예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칠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계에 따른 음식차림용 가구의 높이나 칠의 사용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논의점도 남아 있다. 이것은 그동안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구의 쓰임에 대한 모호한 구분 등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주요할 것이다.

의궤에서 보이는 음식차림용 가구에 대한 연구로서, 본 논고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다만 의궤에 ‘반’ 혹은 ‘상탁’으로 명칭 되는 수많은 가구를 읽어내고, 전하는 유물의 용도와 가치를 이해하는 한 방법을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의궤 기록을 비롯하여 『의주등록』과 같은 등록자료, 발기자료 등 참고 사료를 확대하고 현존 유물을 망라하는 작업을 통해, 왕실 의궤에서 사용된 음식차림용 가구의 용도와 쓰임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의궤

- 1630년(인조8) 풍정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외규장각의궤  
1719년(숙종45)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094>  
1727년(영조3)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奎 13106>  
1744년(영조20)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奎 13109>  
1759년(영조3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102>  
1802년(순조2)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122>  
1819년(순조19)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奎 13130>  
1837년(헌종3)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139>  
1845년(헌종11) 헌종효정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143>  
1852년(철종3)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奎 13147>  
1866년(고종3) 고종명성황후가례도감의궤, <奎 13153>  
1885년(고종22) 순종순명황후가례도감의궤, <奎 13174>  
1719(숙종45) 진연의궤, <奎 14358>  
1744(영조20) 진연의궤, <奎 14359>  
1829년(순조2) 진찬의궤, <奎 14370>  
1848년(헌종14) 진찬의궤, <奎 14372>  
1868(고종5) 진찬의궤, <奎 14374>  
1877(고종14) 진찬의궤, <奎 14376>  
1880(고종24) 진찬의궤, <奎 14405>  
1892(고종 29) 진찬의궤, <奎 14428>  
1926년 순종효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 장서각

### 2. 의궤 외 문헌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실록

『才物譜』, 韓國學古辭典叢書,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80, p.632.

『原本-역어유해(譯語類解)』, 국어국문학총림, 1988, pp.524-525.

### 3. 논저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p.76-100.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공호, 「사진 한 컷에 담긴 근대 공예사의 원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7,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8, pp. 66-89.

최공호, 김미라,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p.54.

한국의식주생활사진, 평상, 국립민속박물관, 2019, p.698.

Abstract

THE USES & FEATURES OF THE WOODEN “BANSANG” FOR  
MEAL-SETTING SHOWN ON THE ROYAL PROTOCOLS IN 18-19  
CENTURY

KIM MIRA (KIM, MI RA)

The furniture for the meal-setting in Joseon Dynasty Era is generally known as ‘Soban’ for meal service with mostly 20~30cm height and seated-on-the-floor size. But, according to ‘Uigwe :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it has been found out that ‘Sang’(a same-sized table used for party nowadays) was used usually and ‘Ban’ was also utilized as the unknown usages in the mela-setting so far.

I would like to review the uses and features of ‘Bansang’ on the focus of ‘Uigwe’ within only 18~19 century. The data of ‘Uigwe’ was referred to ‘Garye Illustration Guide’ which was kept in Gyujanggak of Seoul National Univ. for 18~19 century and ‘Jinyoen’, ‘JinChan Uigwe’, showing the various ‘Bansang’. And furthermore, its assertion was raised on the focus of ‘Garye Illustration Guide of Sunjo Sunwon Wanghu(Queen) in 1802, ‘Jinyeon Uigwe’ in 1719 and ‘Jinchan Uigwe’ in 1848 which are more detailed relatively and bear the logical basis to back up this report.

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report, ‘Ban’ & ‘Sang’ shall be focused that are frequently exposed on ‘Uigwe’ as the representative furniture out of the meal-setting furniture. On the third, uses of ‘Bansang’ and

the relation with its painting shall be reviewed, showing the social hierarchy. Especially, on 'Uigwe' the detail comments are recorded about the painting materials and descended together with the fractionized names besides the 'Juchil'(red-painting) & 'Heukchil'(black-painting) that are already known. This is an important requirement to understand the uses and features of "Bansang", which shall be written on this report.

This report is just beginning for the study of the furniture, which was made for classic meal-setting on 'Uigwe', but it is significant to show you one way to understand the uses & values of the existing artifacts and read a lot of furniture named as 'Ban' or "Sang" on 'Uigwe'.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The Royal Family, The Crafts, 'Soban', 'Sangtak', 'Juchil (red-painting)', 'Heukchil(Black-painting)', 'Uigwe', 'Garye Illustration Guide Uigwe', 'Jinchan-Uigwe'